

보 도 자 료 2015.3.26.(목)	내용문의	이택면 연구위원 (02-3156-7167) 김난주 부연구위원 (02-3156-7136)
	언론담당	황애리 홍보담당 (02-3156-7296)
	보도일자	2015. 3.26.(목)
	※ 총 5쪽 (붙임 포함) www.kwdi.re.kr	

여성 비정규직 문제 해소 위해선

양질의 시간선택제 확대 등 개선노력 중요

‘노동시장 패러다임 전환기의 여성 비정규직 현황과 정책과제’ 주제로 포럼 개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이명선)은 3월 27일(금)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노동시장 패러다임 전환기의 여성 비정규직 현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94차 양성평등정책포럼을 개최한다.
- 이번 포럼은 남녀 청년층의 비정규직 취업 현황과 임금 등 근로실태의 점검을 통해, 향후 노동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양질의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노동시장이중구조의 대표 사례인 비정규직은 각종 차별에 노출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임으로써 노동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 특히 여성은 경력단절과 일자리의 취약성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할 가능성이 큰 집단으로 비정규직 문제는 여성 고용과 관련하여 반드시 짚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 여성 39.9%, 남성 26.6%(2014년 8월 현재)

- 최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노동시장구조개선 측면의 비정규 고용 규제와 차별시정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 이명선 원장은 “이번 행사가 우수한 여성 비정규직 인력들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써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고 행사의 개최의의를 밝혔다.
- 이날 포럼에서 김난주 부연구위원이 “남녀 청년층(15~29세) 비정규직 현황과 정책 과제” 를, 이택면 연구위원이 “고용형태별 임금실태 및 성별격차와 정책과제” 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 김난주 부연구위원은 “실업과 신용불량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청년층을 지칭하는 청년실신, 장기간미취업 신분을 일컫는 장미족, 88만원 세대에서 나아가 ‘열정’을 구실로 무급이나 아주 적은 월급으로 취업준비생을 고용하는 열정페이에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까지 한국 사회에서 청년층의 고단한 상황을 반영하는 신조어들이 양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최근에는 삼포세대에서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오폭세대, 희망과 취업을 포기한 칠포세대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현재 우리사회 청년 고용의 현실을 꼬집으며 발제문 서두를 열었다.
- 그리고 열악한 청년 비정규직 문제의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 ① 15-19세 청소년 근로자를 존중하는 사회의 인식 전환
 - ② 비정규직 채용 시 근로계약 작성 준수 감독 강화

- ③ 사업체의 최저임금법 준수에 대한 감독 강화
- ④ 학교 교육 과정에 근로 관련 법에 대한 교육
- ⑤ 안심알바신고센터의 홍보와 운영 현실화
- ⑥ 청년여성 니트(neet)층에 대한 정부의 무료직업교육 훈련에 대한 홍보
- ⑦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검토
- ⑧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관련 법 적용 제외 조항 개정
- ⑨ 2년 초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현실

□ 이택면 연구위원은 “정규직 내에서는 여성의 시간당 임금이 남성에 비해 비록 추세적으로 격차가 완화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35%이상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내에서도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에 비해 20%이상 더 낮으며, 이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고 밝혔다.

- “여성의 경우,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보다는 같은 고용형태 내 남성과의 임금격차가 더 큰 문제일 수 있음” 을 지적하며, “따라서 성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과제 개발이 필요” 하다고 밝혔다.
- 그리고 “정부의 고용률 70%로드맵 달성과 일·가정 양립 고용환경 확대를 위해서도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가 필요한데, 분석 결과 시간제와 정규직간의 시간당 임금 격차가 남성의 경우 매우 크고, 여성의 경우 격차는 남성 만큼 크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격차가 더 확대되고 있다” 고 설명 하며, “따라서 양질의 시간선택제 확대를 통해 시간제 종사자의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 주제발표 후에는 김순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본부장, 김영중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과장,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일자리·인재센터장, 오세연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최문선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과장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양성평등정책포럼은 양성평등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통해 국가정책의 양성평등 실현방안과 여성정책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올해 지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붙임 1. 행사 개요

붙임 1 행사 개요

- ☐ 행사명 : 제94차 양성평등정책포럼
- ☐ 주제 : 노동시장 패러다임 전환기의 여성 비정규직 현황과 정책과제
- ☐ 일시 : 2015. 3.27(금), 14:00~16:30
- ☐ 장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본관 2층)
-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프로그램

시간	구분	내용
13:30~14:00	등 록	
14:00~14:20	개회식	사 회 : 전기택(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장) 개회사 : 이명선(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축 사 : 이기순(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좌 장 : 박성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인력정책연구실장)
14:20~15:10	발 표	1. 남녀 청년층(15~29세) 비정규직 현황과 정책 과제 김난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 고용형태별 임금실태 및 성별격차와 정책과제 이택면(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5:10~16:00	지정토론	김순희(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본부장) 김영중(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과장) 김종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일자리·인재센터장) 오세연(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최문선(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과장) * 토론자 가나다순
16:00~16:30	종합토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1983년 개원한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여성 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